

『佐理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A Study on Jwa-lee Wonjong Gongsin-Nokgwon

송 일 기(II-Gie Song)**
진 나 영(Na-Young Jin)***

〈 목 차 〉

I. 緒論	2. 體制 分析
II. 『佐理原從功臣錄券』의 頒賜事由 및	IV. 『佐理原從功臣錄券』의 等級別 分析
現存本	1. 1等原從功臣
1. 頒賜事由	2. 2等原從功臣
2. 現存本 現況	3. 3等原從功臣
III. 『佐理原從功臣錄券』의 形態 및 體制 分析	V. 結論
1. 形態 分析	

초 록

『좌리원종공신녹권(佐理原從功臣錄券)』은 성종이 1571년 성종이 왕위에 오르는 일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좌리원종 공신으로 책봉한 후 반사(頒賜)한 책이다. 이 연구는 성암고서박물관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된 『좌리원종공신 녹권』 1책을 대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사유 및 경위를 알아본다. 녹권의 형태와 그 체제를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을 각 등급별로 나누어 책봉된 공신들의 직함과 성씨 및 신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좌리원종공신녹권』은 을해자(乙亥字)의 금속활자본으로 크게 권수(卷首) · 본문(本文) · 권말(卷末)의 3 부분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또한 513개의 직함에 모두 1,059명(1등 64명, 2등 272명, 3등 723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직함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었으며 1등원종공신 직함의 품계가 2등과 3등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원종공신들의 성명에 기술된 성씨(姓氏)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성씨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이(李)씨가 약 21%와 김(金)씨가 약 15%로, 원종공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키워드: 『좌리원종공신녹권』, 『원종공신녹권』, 좌리공신, 좌리원종공신, 을해자

ABSTRACT

Jwa-lee Wonjong Gongsin-Nokgwon(佐理原從功臣錄券) is a book which recorded the titles of position and the names of retainers who made Sung-jong into Chosun dynasty's king. This study aims to research into existing only 1 books of *Jua-ik Wonjong Gongsin-Nokgwon*, which were to analyze the reasons of grant, structure and forms, the characteristics of meritorious retainers' official positions and social status. As the result, *Jwa-lee Wonjong Gongsin-Nokgwon* is the metal typologic book which was made up Eul-hae(乙亥) letter type. The structure of the *Jwa-lee Wonjong Gongsin-Nokgwon* was composed of the beginning(卷首) · the body(本文) · the end(卷末). *Jwa-lee Wonjong* meritorious retainers formed the total of 1,059 persons(1st grade : 64 persons, 2nd grade : 272 persons, 3rd grade : 723 persons) with 513 official titles. Also an analysis of their family name confirmed that 1,059 persons were "Lee" which constituted the largest group(21%), "Kim" were second group(15%).

Keywords: Jwa-Lee Wonjong Gongsin-Nokgwon, Wonjong Gongsin-Nokgwon, Jwa-Lee Gongsin, Jwa-Lee Wonjong Gongsin, Eul-Hae Letter Type

* 이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jny415@naver.com)(공동저자)

• 접수일: 2009년 11월 19일 • 최초심사일: 2009년 11월 30일 • 최종심사일: 2009년 12월 26일

I. 緒 論

공신(功臣)은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신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여 신라시대 때부터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공신의 책봉이 이루어졌고 또한 녹권도 반사되었음을 『고려사(高麗史)』를 통해 알 수 있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녹권이 일정한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체제가 정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太祖) 때의 개국공신(開國功臣) 책봉을 시작으로 영조(英祖) 때의 분무공신(奮武功臣)까지 모두 28차례의 공신 책봉이 있었다. 이 때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을 각각 책봉하였고, 국가의 대소사(大小事)에 공이 있는 이들에게 공신증명서로서 왕의 하명에 따라 공신녹권(功臣錄券)을 반사(頒賜)하였다. 특히 원종공신에게 반사된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기타 문헌에도 그 기록된 바가 많지 않아 알 수 없었던 원종공신의 책봉과 관련된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사실 및 시기별 녹권을 비롯한 조선시대에 간행된 서적의 서지적인 특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 자료인 『좌리원종공신녹권(佐理原從功臣錄券)』은 성종(成宗)의 즉위(即位)에 힘을 쓴 공으로 책봉된 좌리 원종공신들에게 동왕 2(1471)년에 반사된 것으로, 조선시대에 발급되어 현존하는 21종의 녹권 중 을해자(乙亥字)로 인출된 금속활자본이며 현존하는 『좌리원종공신녹권』으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좌리공신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고 행해진 연구들도 주로 좌리공신 중 정공신에만 치중되었으며 원종공신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 연구는 좌리원종공신을 비롯한 『좌리원종공신녹권』에 관해 다룬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좌리원종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함께 그 반사사유를 알아보고, 현존하는 녹권의 형태적 특징과 그 편성체계를 살펴보며 녹권에 기재된 원종공신들의 등급을 구분하여 그들의 직함(職銜)과 성씨(姓氏)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원종공신의 성별 또는 직위별 분포 현황을 파악하여 그 당시 공신들은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왕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신이 되었는지 등을 통해 책봉된 공신들의 지위와 그 성격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시 신분사회의 특징 및 인구사를 연구하는 데 참고가 되고자 한다.

II. 『佐理原從功臣錄券』의 頒賜事由 및 現存本

1. 頒賜事由

좌리공신(佐理功臣)은 성종 2(1471)년에 왕이 자신을 잘 보필하고 정치를 잘한 공으로 신하들에게 내린 공신호(功臣號)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좌리공신과 좌리원종공신이 책봉되기까지의 과정을 『실록』 기사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통해 본 좌리공신 책봉 과정

年度	朝代	月	日	内 容	備 考
1469	예종 1 성종 즉위년	11	28	진시에 임금(예종)이 자미당에서 흥하다	
				예종이 돌아가시니 대비의 명에 의해 경복궁에서 즉위하다	成宗 卽位
1471	성종 2	03	26 27 28 29	신숙주 · 한명희 · 정현조에게 좌리공신을 의논하여 정할 것을 명하다	
				이조에 전지하여 신숙주 등에게 좌리공신호를 내려주게 하다	
				지평 김수손 · 현납 유문통 등이 좌리공신이 마땅치 않음을 아뢰다	
				사복시 · 병조 · 호조 · 장례원에 전지하여 좌리공신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사간원 대사간 김수녕이 좌리공신을 정한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28	종친 · 재추로서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스스로 녹훈을 청하다	
				집의 손순효 · 사간 성준 등이 좌리공신을 정한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좌리공신의 칭호를 내려주다	
			29	대간이 합사하여 좌리공신을 정한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1471	성종 2	04	01 02 03 04 05	사헌부 집의 손순효 등이 상소하여 좌리공신을 정한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사간원 사간 성준 등이 상서하여 좌리공신을 정한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손순효 등이 좌리공신 책정의 부당함과 관련해 사직하는 글을 올리다	
				신숙주 등이 좌리공신에 대한 대간의 의견을 따를 것을 청하다	
				집의 손순효 등이 좌리공신 책정의 부당함을 아뢰다	
		05 07	05	이조에서 공신의 아비에게 좌리공신 4등을 3등으로 추증할 것을 아뢰다	
			01	관중추부사 이변 · 행호군 송처관이 좌리공신에 추록하여 주기를 청하다	
			18	좌리공신에게 말 1필씩을 하사하다	
		08	25	오산군 이주 등을 원종공신으로 삼도록 전지하다	봉명자 : 行都承旨 鄭孝常
				원종공신의 처우에 대해 전지하다	봉명자 : 行都承旨 鄭孝常
1472	성종 3	07	03	졸한 능성부원군 구치관을 좌리공신 2등에 추록하도록 전지하다	
				인정전에 나아가 음복연을 베풀고 좌리공신의 녹권을 주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4호)

예종(睿宗) 1(1469)년 11월 28일, 예종은 갑자기 중태에 빠져들었고, 이 날 승하하였다. 예종의 후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숙주(申叔舟)를 비롯한 권감(權監) 등은 정희(貞喜) 왕대비에게 후계자를 정하도록 청하였다. 후계 왕으로는 거론되는 사람은 3명이었는데, 그 서열로 보면 예종의 아들이 1순위, 예종의 형이었던 의경세자의 두 아들 월산군과 자산군이 각각 2, 3순위였다. 정희왕대비는 원자와 월산군을 제치고 3순위였던 자산군을 후계 왕으로 지목했다. 그 이유는 자산군의 부인 한씨가 계유정난을 통해 세조를 왕위에 올린 공로자이자 정치권의 실세였던 한명희(韓明滄)라는 점이 컸다.

자산군은 예종이 승하한 날, 경복궁에 입궐하여 즉위식을 거행하니 자산군이 곧 성종(成宗)이었다. 이 당시 성종의 나이는 불과 13세였기 때문에 이후 7년간 정희왕대비가 수렴청정을 시행했다.

성종은 예종의 삼년상이 끝난 직후인 성종 2(1471)년 3월에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데 공헌을 한 사람들을 좌리공신으로 책봉하였다. 공신 책봉의 명분은 자신을 보좌하여 인심이 안정되고 국가가 태평해졌다는 것이었다.¹⁾

성종은 좌리공신 중 정공신으로 모두 73명을 책봉하였다. 1등은 9명으로, 정희왕대비에게 후계 왕의 지명을 요구했던 신숙주·한명희·최항(崔恒) 등 원상 7명과 도승지·권감·정현조 2명이었다. 2등은 11명, 3등은 18명이 책봉되었고, 이전의 공신 책봉과는 달리 4등을 두어 35명을 녹훈하였다.²⁾ 좌리공신으로 책봉된 자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좌리 정공신

區分	人員數	姓 名
1등	9	申叔舟, 韓明滄, 崔恒, 洪允誠, 曺錫文, 鄭顯祖, 尹子雲, 金國光, 權誠
2등	11(12)	李廷, 李琛, 鄭麟趾, 鄭昌孫, 沈滄, 金頃, 韓伯倫, 尹士忻, 韓繼美, 韓繼禧, 宋文琳, (具致寬)
3등	18	成奉祖, 盧思愼, 姜希孟, 任元濬, 朴仲善, 李克培, 洪應, 徐居正, 梁誠之, 金謙光, 康袞, 憲承善, 李克增, 韓繼純, 鄭孝常, 尹繼謙, 韓致亨, 李崇元
4등	35	金守溫, 李石亨, 尹弼商, 許琮, 黃孝元, 柳洙, 魚有沼, 咸禹治, 李墳, 金吉通, 宣炯, 禹貢, 金嶠, 吳伯昌, 朴居謙, 李鐵堅, 韓致仁, 具文信, 李淑琦, 鄭蘭宗, 鄭崇祖, 李承召, 韓致義, 韓堡, 金壽寧, 韓致禮, 韓峨, 李克墩, 李壽男, 李鉉, 申靜, 金順命, 柳軒, 沈澣, 申浚
合計	73(74)	

1등공신에 책봉된 공신 중 원래 왕의 지명을 요구했던 원상들은 8명이었는데 이 중 구치관(具致寬)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므로 7명만이 1등공신으로 책봉되었다. 이후 구치관은 같은 해 9월에 좌리 정공신 2등으로 추록되었다. 그리하여 정공신은 모두 74명이었다.

좌리 정공신 중 1등공신들은 세조 때부터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이었으며, 2·3·4등공신들도 대부분 승지, 고위관리들이었다. 좌리공신을 책봉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별한 명분이

1)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서울 : 가람기획, 2003), p.94.

2) 成宗實錄 卷9, 成宗 2年 3月 庚子條.

없이 책봉됨이 부당하고 불가하다는 주장을 지평(持平) 김수손을 비롯하여 유문통(柳文通)·사간원 대사간(司諫院 大司諫) 김수녕(金壽寧) 등이 계속하였고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반대하기도 하여, 좌리공신 책봉은 관료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성종은 같은 해 8월 25일, 왕위에 추대하는 데 정공신을 도와 크고 작은 공이 있는 사람들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하였다. 성종은 원종공신 책봉과 관련하여 이조(吏曹)에 왕위에 오르는 데 충성스럽게 성종을 따르고 보호하는 등 노고에 보답하고 공로(功勞)에 상을 내리도록 명하였다.³⁾ 이렇게 책봉된 원종공신은 모두 1,059명에 달하였다. 4등으로 구분하였던 정공신과는 달리 원종공신은 3등으로 나누었다. 1등원종공신은 64명, 2등원종공신은 272명, 3등원종공신은 723명이었다. 1등원종공신은 대체적으로 종친(宗親)이나 신분 혹은 품계가 높은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2등 및 3등원종공신은 1등보다는 낮은 신분이나 품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신분이 낮은 노비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었다. 성종은 이렇듯 여러 관료들의 반대에도 좌리 정공신 및 원종공신을 책봉하여 이들에게 포상과 특전을 내려 왕권을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 現存本 現況

국내·외 국가도서관을 비롯한 대학도서관의 고서목록을 살펴본 바, 현존하는 『좌리원종공신녹권』은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1책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현존하는 『佐理原從功臣錄券』

番號	所藏處	請求記號	備考
1	성암고서박물관	성암2-391	

위의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좌리원종공신녹권』은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좌리원종공신에 대한 내용이 『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이 녹권을 통해 좌리원종공신의 반사사유와 직함 및 성명, 포상규정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

녹권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권수제면을 비롯한 2장 정도의 종이 좌측 하단 부분이 조금 떨어져 나가 몇몇의 글자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 외에는 깨끗이 보존되어 있어 녹권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수월하였다.

3) 成宗實錄 卷11, 成宗 2年 8月 乙丑條.

4) 이 연구를 위해 성암고서박물관의 소장본 『佐理原從功臣錄券』을 제공해 주신 성암 조병순 관장님께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III. 『佐理原從功臣錄券』의 形態 및 體制 分析

이 장에서는 『좌리원종공신녹권』의 형태적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녹권의 체제를 분석한다. 형태 분석에서는 현존하는 『좌리원종공신녹권』을 통해 녹권의 형태적인 특징을 파악해보고, 체제 분석에서는 녹권을 크게 권수(卷首) · 본문(本文) · 권말(卷末)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과 함께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1. 形態 分析

『좌리원종공신녹권』은 성종 2(1471)년에 금속활자 중 을해자(乙亥字)로 인출한 1책(18장)으로 이루어졌다. 을해자는 세조 1(1455)년에 강희안(姜希顏)의 글씨를 글자본으로 만든 동활자로, 글자체가 편평하고 대체로 폭이 넓고 둥근 필의의 계통이다.⁵⁾ 현존하는 공신녹권 중 을해자로 인출된 녹권은 『좌리원종공신녹권』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선장(線裝) 형태로 제책이 되었으며, 표제(表題)는 ‘좌리공신록(佐理功臣錄)’으로 묵서(墨書)되어 있다. 곁에 다시 장정을 하였는데 여기의 표제는 ‘좌리공신녹권(佐理功臣錄卷)’이라고 묵서되어 있었고, 보통 녹권을 ‘錄券’이라 하는데 ‘錄卷’으로 썼다. 권수제(卷首題)는 녹권의 발급기관이었던 ‘이조(吏曹)⁶⁾’로 되어 있다. 『좌리원종공신녹권』의 형태서지사항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佐理原從功臣錄券의 書誌事項

佐理原從功臣錄券 / 杉曹 編. - 乙亥字本. - 漢城 : 杉曹, 成宗 2(1571)年.
1冊(18張) : 四周單邊, 半廓 26.7×20.2cm, 12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 ; 32.4×22.6cm.

表題名 : 佐理功臣錄
版心題 : 功臣錄券
印記 : 杉曹之印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邊欄)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반곽(半廓)의 크기는 26.7×20.2cm이고 전체 책의 크기는 32.4×22.6cm이다. 반엽(半葉)을 기준으로 12행 21자씩 배자되어 있

5)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서울 : 범우사, 1993), p.79.

6) 이조(吏曹)는 조선시대 문선(文選) · 훈봉(勳封) · 고과(考課)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로 육조(六曹)의 하나이다. 태조 1(1392)년에 문선사(文選司) · 고훈사(考訓司)를 늘려 운영하였고, 태종 5(1405)년에 승녕부(承寧府) · 공안부(恭安府) · 종부사(宗簿寺) · 인녕부(仁寧府) · 상서사(尙瑞司) · 사선서(司善署) · 내시부(內侍府) · 공신도감(功臣都監) · 내시원(內侍院) · 차방(茶房) · 사옹방(司饔房)이 편속되었다. 이조에 공신도감이 편속되어 있음을 통해 이조가 공신도감의 상위 부서임을 알 수 있으며, 주로 이조에서 공신의 책봉을 비롯하여 녹권의 발급을 담당하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고, 계선(界線)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중앙의 판심부(版心部)에는 ‘공신녹권(功臣錄券)’이라는 판심제가 있으며, 어미(魚尾)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변란과 계선, 그리고 계선과 어미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눈이 보이며 이를 통해 활자본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인장(印章)은 「이조지인(吏曹之印)」⁷⁾이 녹권의 수급자(受給者)가 기재된 권수제면(卷首題面) 한 곳에 주인(朱印)되어 있다.

2. 體制 分析

『원종공신녹권』의 체제는 크게 권수(卷首) · 본문(本文) · 권말(卷末)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좌리원종공신녹권』도 이러한 체계로 나누어진다. 각 부분의 구성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佐翼原從功臣錄券』의 體制 構成

區分	內容		印章
卷首	卷首題	發給機關名	受給者 姓名 위에 御寶 (吏曹之印)
	受給者	職銜 姓名	
本文	奉敎日 및 奉命者	날짜(공신책봉) 職銜 姓名	三等功臣 마지막에 御寶 (吏曹之印)
	傳旨	傳旨……(책봉사유)	
	等級別 功臣	職銜 姓名	
	奉敎日 및 奉命者	날짜(포상 및 특전 시행) 職銜 姓名	
	傳旨	傳旨……(등급별 포상규정)	
卷末	功臣都監名 및 都監員(手決)	發給機關名 각 도감원의 職銜 및 姓氏 手決	都監員의 시작부분에 御寶 (吏曹之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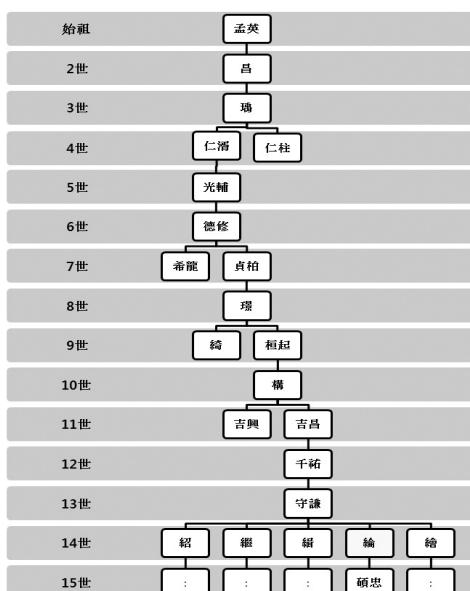
권수의 체제는 권수제, 녹권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 본관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의 체제는 공신책봉과 관련된 봉교일(奉敎日)과 봉명자(奉命者), 녹권의 반사사유 및 경위,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시행과 관련된 봉교일과 봉명자,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과 이를 시행한 기관으로 이루어졌다. 권말의 체제는 녹권의 발급기관명, 발급기관 구성원의 직함과 성씨(姓氏), 수결(手決)로 구성되었다.

7) 이조지인(吏曹之印)은 녹권의 발급을 담당했던 기관인 이조의 인(印)을 담인(踏印)한 것으로, 『開國原從功臣錄券』과 『佐翼原從功臣錄券』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조선 초기에 발급된 녹권에서 보이는 인장의 형태이다.

가. 卷首

『좌리원종공신녹권』의 권수 체제는 권수체, 녹권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 본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권수체에는 녹권의 발급기관인 이조를 기재하였고, 그 다음 행에는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을 나타냈다. 직함을 쓸 때에는 겸직(兼職)이나 전직(前職)까지 모두 기재하였다. 직함 아래에는 성명을 썼고, 성명 아래에는 수급자의 본관(本貫)을 '本○○'의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다만 본문에서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겸직이나 전직의 내용을 모두 나타내지 않고 간단하게 하였으며 수급자의 본관은 기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 녹권 수급자로 권수 부분에는 '通訓大夫行敦寧府主簿 宋綸 本治爐'라고 기재되었는데, 본문 부분에서는 단순히 '行敦寧府主簿 宋綸'로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녹권의 권수 부분에 기재된 수급자 사항은 수급자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좌리원종공신녹권』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금속활자로 인출된 것이나 수급자의 직함, 성명과 본관에 대한 사항은 필사되어 있었다. 이 녹권의 수급 대상자가 1,059명이고 모두 제각각 다르므로 수급자에 대한 사항을 뺀 나머지 내용은 활자로 동일하게 인쇄한 후, 수급자에 대한 사항은 일일이 필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좌리원종공신녹권』의 수급자는 2등원종공신으로 책봉된 '통훈대부행 돈녕부주부 송륜(通訓大夫行敦寧府主簿 宋綸)'으로 본관은 야로(治爐 :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이다. 이 내용을 근거로 『야로송씨세보(治爐宋氏世譜)』를 통해 수급자 송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1〉 治爐 宋氏 家系圖

위의 <그림 1>과 같이, 야로 송씨는 고려 목종(穆宗) 때 사람인 송맹영(宋孟英)을 시조로 하였고, 야로⁸⁾를 본관으로 삼았다. 14세(世)인 송륜의 자(字)는 윤언(允言)이고, 생몰년은 나타나있지 않다. 통훈대부(通訓大夫 : 문관 정3품 하계)이자 좌리원종공신이었고, 영유현령(永柔縣令 : 평안남도 평원의 옛 지명)을 지냈다. 호(號)는 경산자(京山子)이다. 송륜의 아버지 송수겸(宋守謙)은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로부터 야로 송씨는 5개의 파로 나뉜다. 파의 이름은 각 아들들의 직함명에 따라 직장공파(直長公派), 상호군공파(上護軍公派), 대호군공파(大護軍公派), 현령공파(縣令公派), 선전공파(宣傳公派)로 지어졌는데, 그 중 수겸의 4남(男)인 송륜(宋綸)이 현령공파이다. 송륜의 부인은 청주 한씨(淸州 韓氏)로, 부인의 아버지는 영의정청주부원군(領議政淸州府院君)을 지냈고, 그의 호는 관수정(觀水亭)이고 휘(諱)는 창(昌)이며 자(字)는 성망(聖望)이었다. 자녀는 1남 4녀를 두었으며, 아들의 이름은 석충(碩忠)이고 경태(景泰) 갑술(甲戌 : 1454)년에 태어났다.

송륜의 묘는 금천(黔川 : 현 강원도 태백)과 신림역(新林驛 : 강원도 원주) 사이 유동(有洞)에 있었으나, 그 자리가 실전(失傳)되어 평은구역(平恩舊驛 : 현 경상북도 영주) 괴동(槐洞)에 단(壇)을 세웠다.

나. 本文

본문에서는 공신 책봉에 관한 명을 받은 사람인 봉명자의 직함과 성명,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의 내용을 담은 전지(傳旨),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및 특전 시행에 관한 명을 받은 사람의 직함과 성명, 등급별 포상 및 특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佐理原從功臣錄券』의 本文 内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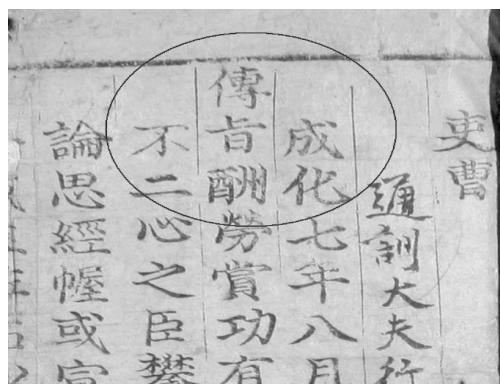
順序	内 容	奉命者
1	成化 7(1471)年 8月 25日 이조에 원종공신 책봉을 하라고 명함	行都承旨 鄭孝常
2	傳旨(공신 책봉 경위 및 사유)	-
3	각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 나열	-
4	成化 7(1471)年 8月 25日 원종공신에 대한 포상규정 및 특전을 명함 -吏曹 담당	行都承旨 鄭孝常

성종 2(1471)년 8월 25일, 왕이 이조에 공신을 책봉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은 행도승지(行都承旨) 정효상(鄭孝常)⁹⁾이다. 다음 행에는 '전지(傳旨)'를 표기한 후,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 및 경위

8) 야로(冶爐)의 별호로서 야성(冶城)이 있으며, 현재는 야성으로 사용된다.

9) 생몰년은 1432-1481년으로,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가구(可久)이며 증좌찬성 화년(和年)의 아들이다. 문종 1(145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세조 1(1455)년 12월 좌의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466년 문과 중시에 급제하고, 예종 즉위(1468)년 10월 동부승지에 발탁되어 곧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워

에 대한 내용을 나타냈는데, ‘전지’는 다른 행의 글자보다 한 글자 위에 기재하였다. 이는 왕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기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에서 설명한 전지 부분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佐理原從功臣錄券』의 傳旨 부분

『좌리원종공신녹권』의 전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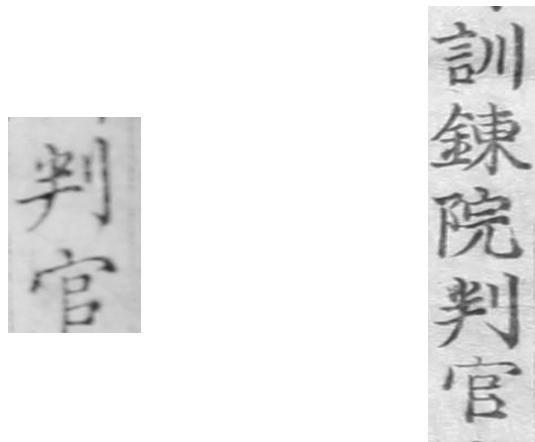
공로에 보상하고 상을 주는 것은 국가의 아름다운 법이다. 덕이 적은 내가 대통을 잇게 되었는데 오직 충정을 지니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신하들만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랐기 때문이다. 혹은 재상으로서 혹은 장수로서 나를 친거하고 지키고, 혹은 경악(經幄 : 경연하는 자리)에서 논사(論思)한 자로서, 혹은 외복(外服)에 힘쓴 자로서, 혹은 눈과 귀의 관원이 있는 자로서, 혹은 나를 지켜준 절친한 자로서 혹은 좌우에서 말과 행동을 기강을 세우고, 혹은 부지런히 살펴 다니며 나에게 보고한 자로서, 혹은 나를 시중한 자로서, 혹은 자극한 친척부터 복예의 천한 자들까지 모두 분주히 힘을 다했으니 이에 비록 관직과 신분으로 마땅하나,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의 은전(恩典)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¹⁰⁾

의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책록되고, 가선대부에 올라 계림군(鶴林君)에 봉하여졌다. 그 후 우부승지·좌부승지·도승지를 거쳐 성종 2(1471)년 3월 성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다시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에 책록되고 정현대부(正憲大夫)에 올랐다. 1472년 경상도관찰사를 겸하였고, 1474년 공조판서에 승진, 이어 이조판서가 되었고, 1476년 진하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477년 지증추부사가 되었다.

10) 吏曹 編, 『佐理原從功臣錄券』.

酬勞賞功有國常典予以寡德入承大統惟忠貞不二心之臣攀附景從是賴或相或將以翼以衛或論思經幄或宣力外服或有耳目之官或有瓜牙之士或在左右以記言動或勤跋涉以與敷奏或參侍從或連戚屬以至僕隸之賤悉效奔走之力茲雖聽分之宜予敢忘哉當示褒賞之典以堅終始之義

위의 전지의 내용을 통해 좌리원종공신은 성종이 즉위하는 데 여러 도움을 준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지 다음 행부터는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하였다. 1등은 64명, 2등은 272명, 3등은 723명으로 모두 1,059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직함과 성명이 나열되어 있다. 등급별 공신의 구분 표시는 ‘…等乙良原從功臣○等’이라고 나타내어 등급간 구별을 쉽게 하였다. 이와 같은 구별 표시를 『좌리원종공신녹권』보다 약 15년 전에 반사된 『좌익원종공신녹권(佐翼原從功臣錄券)』에서는 ‘…等乙良佐翼原從功臣○等’이라고 하여 원종공신이 ‘좌익(佐翼)’임을 분명히 하였던 반면, 『좌리원종공신녹권』에서는 ‘좌리(佐理)’라는 내용을 뺀 것으로 확인하였다.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의 나열은 뚜렷한 기준이나 순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대체적으로 왕실의 친족이나 고위 관료로부터 시작하여 신분이 낮은 공신으로 나열하였고, 1등공신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3등공신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좌익원종공신녹권』과 비교해보았을 때 약간의 차이점을 밝힐 수 있었다.



〈그림 3〉 『좌익원종공신녹권』과 『좌리원종공신녹권』의 직함 기술 비교

위의 〈그림 3〉과 같이 『좌리원종공신녹권』에서의 직함 기술에서는 소속 기관 등을 함께 기재하여 『좌익원종공신녹권』에 비해 비교적 자세한 직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좌리원종공신녹권』에서는 곳곳에 같은 기관에 소속된 직함끼리 나열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내시부(內侍府)에 속하는 몇몇의 공신들끼리 기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전의 녹권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 공신들의 나열 규칙을 찾아보려 했으나 특별한 규칙은 없었다. 또한 성명과 같은 경우는 같은 성(姓)씨에 항렬 돌림자를 쓰는 듯한 성명들이 곳곳에 보였다. 예를 들면 ‘신종옥(申從沃)’ 다음에는 ‘신종호(申從濩)’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규칙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위의 내

용에 해당되는 녹권의 부분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前	樽行敦寧府副正閔孝忻行敦寧府判官
行上護軍愾後中行內侍府尚帑金壽敬行內侍	申從沃學生申從瀋學生韓福行司直
府尚醞金處善行內侍府尚弧宋重行內侍府尚弧	縣監朴士英揚州牧使尹壕行豐儲倉
尹得富行內侍府尚洗張富行內侍府尚弧張龍行內侍	
司猛金純福慶尚左道水軍僉節制使金致亨右道	
직함	성명

<그림 4>『좌리원종공신녹권』의 직함과 성명 나열 순서

성종은 원종공신의 책봉을 명했던 날인 동왕 2(1471)년 8월 25일에 원종공신의 처우에 대해 ‘행도승지 정효상’에게 전지하였다.¹¹⁾ 이로 인해 각 등급별로 포상규정 및 특전을 정해 이조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명해졌다. 『좌리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은 『좌익원종공신녹권』의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좌리원종공신에게 내린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은 1등은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여 자손(子孫)이 음직(蔭職)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宥赦)가 후세(後世)에까지 미치며, 부모(父母)를 봉작(封爵)하게 했다. 2등(原從功臣二等)은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여 자손이 음직(蔭職)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宥赦)가 후세에까지 미치며, 아울러 자손 중에서 자원(自願)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하며, 그 자손이 없는 자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原從功臣三等)은 각각 1자급을 더하여 자손이 음직(蔭職)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宥赦)가 후세에까지 미치게 한다. 각 등급에서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상인 경우에는 자손·형제·조카·사위 중에서 1인이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하고,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각각 본래의 등급에 의하여 시행하되, 각각 1자급을 추증(追贈)한다. 범죄(犯罪)하여 산인(散人)이 된 경우에는 아울러 본품(本品)에 서용(叙用)하며, 상(喪) 중에 있거나 까닭 없이 산인(散人)이 된 경우에는 각각 1자급을 더하여서 서용한다. 길이 서용하지 아니할 사람인 경우에는 벼슬길[仕路]에 허통(許通)하게

11) 成宗實錄 卷11, 成宗 8年 25月 乙丑條.

〈표 7〉 좌익원종공신과 좌리원종공신에 대한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 비교

區 分	褒賞規程	
	佐翼原從功臣	佐理原從功臣
一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承蔭宥及後世
	부모 封爵	封爵
二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婿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婿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부모 封爵	-
三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承蔭宥及後世
	부모 -	-
各等 通政 以上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物故人	各依本等施行爲旂各追贈一資	各依本等施行爲旂各追贈一資
犯罪作散人	並於本品敍用	並於本品敍用
在喪及 無故作散人 ¹²⁾	各加一資敍用 ¹³⁾	各加一資敍用
永不敍用人	許通仕路	許通仕路
職牒收取人	並只還給	並只還給
妻子	限品安徐	限品安徐
公私賤口	免賤	免賤
私賤	公處奴婢 充給	-

*굵은 글씨는 『좌익원종공신녹권』의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과 다른 부분을 나타냄.

하며, 직첩(職牒)을 거두어들인 사람인 경우에는 모두 되돌려 주고, 청(妾)의 아들인 경우에는 한품(限品)하지 아니하며, 공천(公賤)·사천(私賤)인 경우에는 모두 천인(賤人)을 면하게 하였다.

좌익원종공신의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위의 〈표〉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들이다. 1등공신의 자손 부분에서 좌익원종공신은 '자손 중에서 자원(自願)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좌리원종공신은 이와 같은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좌익원종공신 2등의 부모는 '봉작'되었으나 좌리원종공신은 부모에 대한 특전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좌익원종공신은 사천(私賤)인 경우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하였는데 이 항목에 대한 특전이 좌리원종공신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처럼 좌리원종공신의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이 좌익원종공신의 것과 다른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좌리공신 책봉에 대한 심한 반대와 이전보다는 신분제도가 점차 확립 등의 사회적 요인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12) 상(喪) 중이거나 무고(無故)로 벼슬하지 못하는 사람.

13) 한 품계를 옮겨서 서용(敍用)함.

다. 卷末

권말의 첫 행에는 녹권을 발급·반사를 주관했던 기관인 이조(吏曹)가 기재되었고, 그 다음 행부터는 그 기관에서 녹권 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았던 관원들의 직함과 성씨(姓氏) 및 그들의 수결로 구성되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좌리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을 담당했던 관원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官員의 官職名 및 品階

번호	관직명	品階	人員數
1	兼判書	정2품	1
2	判書	정2품	1
3	參判	중2품	1
4	參議	정3품	1
5	行正郎	정5품	3
6	行佐郎	정6품	3
合計			10

『좌리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을 담당했던 관원은 모두 10명이며, 겸판서 1명·판서 1명·참판 1명·참의 1명·행정랑 1명·행좌랑 1명 등 6개의 관직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품계는 정6품부터 정2품까지 다양한 품계의 관원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녹권에 기재된 이들의 구체적인 관직·직함, 성씨 및 수결 유무를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官員의 官職·職銜 및 姓氏·手決

번호	관직·직함	姓氏	手決	名	備考
1	兼判書推忠定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宣城君	盧	有	盧思慎	3등정공신
2	判書輸忠保社定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資憲大夫廣川君	李	有	李克增	3등정공신
3	參判純誠佐理功臣嘉靖大夫河南君	鄭	無	鄭麟趾	2등정공신
4	參議通政大夫	梁	無	미상	
5	行正郎中訓大夫知製教兼承文院校理	裊	無	미상	
6	行正郎中訓大夫知製教兼承文院校理	柳	無	미상	
7	行正郎朝奉大夫兼承文院校理	李	無	미상	
8	行佐郎通德郎	權	無	미상	
9	行佐郎奉直郎兼春秋館記事官承文院校檢	南	無	미상	
10	行佐郎奉訓郎兼承文院校檢	辛	有	미상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좌리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을 담당한 관원들의 관직 및 직함, 성씨 등이 기재되었다. 성명(姓名)이 아니라 성씨만을 기재하고 있어 그 관원들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관직 및 직함 등을 통해 몇몇 사람의 성명을 파악할 수 있었다. ‘兼判書推忠定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宣城君 嘉’는 ‘노사신(盧思慎)’으로 좌리 정공신 3등에 책봉되었고, ‘判書輸忠保社定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資憲大夫廣川君 李’는 ‘이극증(李克增)’으로 노사신과 같은 좌리 정공신 3등에 책봉되었으며, ‘參判純誠佐理功臣嘉靖大夫河南君 鄭’은 좌리 정공신 2등에 책봉된 ‘정인지(鄭麟趾)’임을 확인되었다. 이외의 7명의 관원은 확인 가능한 사실이 부족하여 파악할 수 없었다.

이들은 녹권에 성씨만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성씨 아래 부분에 수결을 하였는데, 모든 관원이 수결을 한 것은 아니었다. 동일한 녹권이라도 수결한 사람이 동일하거나 수결의 유무(有無)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며, 이는 부재(不在) 중인 관원으로부터는 수결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녹권의 발급기관이 공신 책봉 업무가 있을 때에만 임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담당 관원 모두가 녹권에 수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모두 관원이 1천여 명이 넘는 공신들의 녹권에 일일이 수결하는 일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좌리 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의 수결은 다음과 같다.



宣城君 嘉(思慎)



廣川君 李(克增)



行佐郎奉訓郎兼承文院校檢 辛

〈그림 5〉 녹권에 기재된 관원의 수결

본문까지와는 달리 권말 부분에서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문까지는 활자, 즉 을해자로 인쇄하였지만 권말 부분은 목판으로 찍어 인출하였다. 이처럼 권말 부분을 목판으로 인쇄한 까닭은 관원의 직함을 전직, 겸직 및 공신호 등의 모든 내용과 함께 성씨를 한 행에 기재하고 있어 그 글자를 작고 정교하게 나타내야 했기 때문이다.

IV. 『佐理原從功臣錄券』의 等級別 分析

이 장에서는 성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 크고 작은 공을 세워 책봉된 좌리원종공신을 등급별로 직함, 성씨(姓氏) 및 신분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3등급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바탕으로 각각의 인원수를 분석하여 좌리원종공신들의 특징을 조사한다.

1. 1等原從功臣

가. 職銜 分析

좌리원종공신 1등에 책봉된 사람은 모두 64명으로 이들의 직함을 모두 해야려보면 36개로 나타났다. 이 직함을 근거로 이들을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佐理原從功臣 1等의 分包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군	烏山君, 蛇山君, 銀川君, 定陽君, 雲山君, 八溪君, 玉山君, 江陽君, 桃平君, 茂林君, 春陽君, 金山君, 雲水君, 進禮君, 壽城君, 鈴川君	16	25.0
정1품	領敦寧府事, 儀賓	3	4.7
종1품	行判中樞府事	1	1.6
정2품	知中樞府事	1	1.6
종2품	中樞府事, 同知中樞府事, 漢城府右尹, 江原道觀察使, 忠清道觀察使, 永安道觀察使, 內侍府尙膳, 忠清道兵馬節度使	11	17.1
정3품	行上護軍, 戶曹參議, 吏曹參議, 工曹參議, 行定州牧使, 工監正, 司譯院正	8	12.4
종3품	行大護軍, 行內侍府尙藥	5	7.8
정4품	行護軍, 前護軍	4	6.2
종4품	行副護軍, 行敦寧府僉正	4	6.2
정5품	戶曹正郎	1	1.6
종5품	行副司直	1	1.6
정6품	行司果, 前司果	3	4.7
종6품	慎花	1	1.6
정7품	-	0	0
종7품	-	0	0
정8품	前行司猛	1	1.6
종8품	行副司猛, 敦寧府奉事	2	3.1
정9품	行司勇	1	1.6
종9품	展力副尉	1	1.6
合 計		64	100

위의 〈표 10〉을 보면 1등공신에 책봉된 품계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품계는 왕의 친족이나

공신들 등에 해당되는 군(君)¹⁴⁾이 16명인 25.0%로 가장 많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종2품으로 모두 11명에 17.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3품은 8명에 해당하는 12.4%가 차지하고 있다. 즉 군, 종2품 및 정3품에 해당하는 공신들이 1등공신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좌리원종공신 1등에는 모두 36개의 직함에 64명의 공신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를 인원수가 많이 기재된 직함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1등원종공신 : 36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관	인원수	비율(%)
1	君	·	·	16	25.0
2	同知中樞府事	종2품	문관	4	6.3
	行大護軍	종3품	무관	4	6.3
4	行副護軍	종4품	무관	3	4.7
	行護軍	정4품	무관	3	4.7
합계				30	47.0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인원을 기재한 직함은 군(君)으로 모두 16명이었고, 이어서 중추부에 소속되었던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와 오위(五衛)에 속한 행대호군(行大護軍)이 각각 4명이었으며, 행부호군(行副護軍)과 행호군(行護軍)이 각각 3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좌리원종공신 1등의 문·무반 현황

區分	人員數	比率(%)
문관	24	37.5
무관	22	34.4
종친 및 인척, 군	18	28.1
합계	64	100

총 64명 중에 문관이 24명인 37.5%였고 무관이 22명으로 34.4%였음을 알 수 있다. 문관이 무관보다 더 많았으나 그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종친 및 인척이나 군(君)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6명인 25.0%로 이들이 1등공신에 많이 책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함 및 관직명 중에서 앞에 전(前)이나 행(行) 또는 아무 것도 붙이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전(前)’은 원종

14) 본래 군(君)은 종2품부터 정1품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좌리원종공신녹권』에서는 군의 품계를 정확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군에 해당하는 공신이 많으므로 분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신으로 책봉될 당시 퇴직한 상태인 사람의 경우 그가 지냈던 직함이나 관직명 앞에 붙여준 것이며, '행(行)'은 행수법에 따라 품계가 높은 사람이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었을 때 직함이나 관직명 앞에 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1등원종공신들의 직함을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1등원종공신

구분	인원수	비율(%)
일반	41	64.0
행(行)	20	31.3
전(前)	3	4.7
합계	64	100

일반적인 직함이나 관직명을 갖은 사람이 41명, 즉 64.0%로 가장 많았으며 본래 자신의 품계보다 낮은 직함에 임명된 공신이 20명으로 약 31.3%를 차지했다. 퇴직한 상태인 공신은 3명인 4.7%로 가장 낮았다.

나. 姓氏 分析

좌리원종공신 1등에 책봉된 사람들의 성명을 통해 성씨를 분석해보았다. 이들의 성씨는 모두 27개였으며, 각각 성씨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1등원종공신 : 성씨 27개

區分	姓氏	人員數			比率(%)	
1	李	宗親	15	24	37.5	
		기타	9			
2	金	6		9.4		
3	鄭	3		4.7		
4	具	2		3.1		
	尹	2		3.1		
	張	2		3.1		
	姜	2		3.1		
	成	2		3.1		
기타	申	2		3.1		
	高, 南, 盧, 閔, 朴, 卞, 宋, 沈, 安, 梁, 嚴, 芮, 立, 曹, 崔, 韓, 洪, 黃, 미상	각 1		29.8		
합계		64		100		

〈표 14〉를 살펴보면, 이(李)씨가 1등원종공신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종친이 15명인

약 24.7%로 많은 수에 해당하고 있었고, 종친이 아닌 이씨는 9명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은 김(金)씨가 6명인 9.4%였으며 정(鄭)씨가 3명으로 4.7%로 구성되었다. 이들 3개의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1등원종공신의 절반가량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의 성씨들은 1명 내지 2명으로 이루어졌고, 이 중 미상으로 나타낸 1명의 성씨는 녹권의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직함은 행호군(行護軍)이며 이름은 적(適)임은 파악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성씨 중에 입(立)씨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씨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중국의 성씨 중에서 입씨를 볼 수 있었다. 즉 녹권에 기재된 행대호군(行大護軍) 입종□(立從□)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이거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2. 2等原從功臣

가. 職銜 分析

좌리원종공신 2등에 책봉된 공신은 모두 272명이었으며 공신들의 직함은 171개로 구성되었다. 직함을 기준으로 이를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된 현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5〉와 같다.

〈표 15〉 佐理原從功臣 2等의 分包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군	誼城君, 咸陽君, 寶城君, 瑞原君, 樂安君, 永川君, 鎮南君, 牛山君, 南川君, 富原君, 新宗君, 堤川君, 凤城君, 鵠城君, 始安君, 娥姍君, 江寧君, 坡城君, 安川君	19	7.0
정1품	-	0	0
종1품	-	0	0
정2품	前知中樞府事, 開城府留守, 前知中樞府事, 知敦寧府事, 承貧	5	1.8
종2품	安南道節度使, 全羅道觀察使, 同知中樞府事, 全州府尹, 內侍府尙膳, 尚膳, 同知敦寧府事, 慶尙右道兵馬節度使, 黃海道觀察使, 前江原道觀察使	11	4.0
정3품	高林正, 工曹參議, 內贍寺正, 敦寧府都正, 敦寧府正, 明川都正, 毛山都正, 牟陽都正, 福城正, 蓬城正, 緋山都正, 上護軍, 宣傳官, 成均館大司成, 楊州牧使, 永善正, 藝文館直提學, 雲林都正, 掌樂院正, 典醫監正, 前全羅道水軍節度使, 兼知中樞府事, 鷺城正, 通禮院左通禮, 桧城都正, 平安道節度使, 鶴林正, 行內侍府尙醞, 行上護軍, 行安州牧使, 行義州牧使, 行僉知中樞府事, 行海州牧使, 刑曹參議, 懷義都正	43	15.8
종3품	道陽副正, 漢關僉節制使, 寧仁副正, 前司諫院司諫, 忠義衛, 行歸城府使, 行大護軍, 行敦寧府副正, 行司諫寺副正, 行司僕寺副正, 行司贍寺副正, 行繕工監副正, 行安東府使, 行藝文館典翰, 行掌樂院副正, 行會寧府使	17	6.3
정4품	嘉林守, 丹山守, 議政府舍人, 前通贊, 前行護軍, 行內侍府尙傳, 行司獻府掌令, 行成均館司藝, 行藝文館應敎, 行宗親府典籤, 行豐儲倉守, 行護軍	17	6.3
종4품	博川郡守, 富潤副守, 副護軍, 松林副守, 仁陽副守, 前博川郡守, 忠贊衛, 咸陽郡守, 行軍器寺僉正, 行金山郡守, 行碧潼郡守, 行副護軍, 行藝文館副應敎, 行中樞府經歷, 行忠勳府經歷, 行漢城府庶尹	25	9.2

2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4호)

品階	職 銜	人員數	比率(%)
정5품	議政府檢詳, 前司諫院獻納, 前吏曹正郎, 宗親府典簿, 行工曹正郎, 行兵曹佐郎, 行司直, 行司憲府持平, 行禮曹正郎, 行禮曹佐郎, 行吏曹正郎, 行吏曹佐郎, 行刑曹正郎, 行戶曹正郎	27	9.9
종5품	義城縣令, 前行副司直, 行慶源判官, 行慶州判官, 行金浦縣令, 行內侍府尚帑, 行內資寺判官, 行都摠府都事, 行敦寧府判官, 行兵曹正郎, 行副司直, 行司僕寺判官, 行藝文館校理, 行藝文館副校理, 行義盈庫令, 行掌隸院司議, 行忠翊府都事, 行黃海道都事, 行訓練院判官	34	12.5
정6품	內需司別提, 別提, 司憲府監察, 前戶曹佐郎, 行工曹佐郎, 行司果, 行司憲府監察, 行均成館典籍, 行藝文館修撰, 行刑曹佐郎	20	7.4
종6품	藝文館副修撰, 前加平縣監, 前部將, 前行泗川縣監, 行康翎縣監, 行藍浦縣監, 行敦寧府主簿, 行報恩縣監, 行副司果, 行司僕寺主簿, 行司瞻寺主簿, 行堤川縣監, 行宗簿寺主簿	17	6.3
정7품	承政院注書, 行藝文館奉教	3	1.1
종7품	行內侍府尚設, 行內資寺直長, 行副司正, 行宗廟署直長	8	2.9
정8품	行司猛, 行尚瑞院副直長, 行藝文館待敎	5	1.8
종8품	前宗廟署奉事, 前行副司勇, 行副司猛, 行平市署奉事	7	2.6
정9품	行司勇	1	0.3
종9품	敬陵參奉, 敦寧府參奉, 行副司勇, 行昭格署參奉	9	3.3
기타	奴, 學生	4	1.5
合 計		272	100

위의 〈표 15〉를 살펴보면 좌리원종공신 2등으로 책봉된 272명 중 43명으로 가장 많이 구성된 품계는 정3품이다. 그 다음으로는 34명으로 약 12.5%를 차지하고 있는 종5품이 많았으며, 정5품은 이보다는 적은 27명인 9.9%를 이루었다. 위의 정3품, 종5품 및 정5품에 해당되는 공신들은 좌리원종공신 2등의 1/3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기타로는 노비[奴], 학생(學生)이 4명을 나타내어 양반을 비롯하여 노비의 신분도 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좌리원종공신의 직함은 모두 171개로, 직함별 인원수가 많이 기재된 순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2등원종공신 : 171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관	인원수	비율(%)
1	行副司直	종5품	무관	10	3.7
2	行副護軍	종4품	무관	9	3.3
3	行司直	정5품	무관	7	2.6
4	行司果	정6품	무관	6	2.2
	行副司勇	종9품	무관	6	2.2
合 計				38	14.0

위의 〈표 16〉에서 보듯이 1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직함은 오위(五衛)의 관직 중

하나인 행부사직(行副司直)이었고, 그 다음은 9명으로 구성된 종4품 행부호군(行副護軍)이었다. 행사직(行司直)은 7명으로 3번째로 많은 인원수를 지녔으며 행사과(行司果)와 행부사용(行副司勇)이 각각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인원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직함은 대체로 정5품부터 종6품 사이의 무반(武班)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좌리원종공신 2등의 문·무반 현황

區分	人員數	比率(%)
문관	168	61.8
무관	80	29.4
종친 및 인척, 군	20	7.4
기타	4	1.4
합계	272	100

좌리원종공신 2등 272명 중에 문관에 해당되는 공신은 168명으로 2등원종공신 중 절반 이상이 이에 구성되며, 무관은 80명으로 약 29.4%를 차지하였다. 종친 및 인척, 군(君)에 해당되는 공신은 그 비율이 1등원종공신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2등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좌리원종공신 2등의 직함에서도 1등과 마찬가지로 직함 및 관직명 중에서 앞에 전(前)이나 행(行) 또는 아무 것도 붙이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이에 따른 공신들의 직함을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표 18〉과 같다.

〈표 18〉 2등원종공신

구분	인원수	비율(%)
일반	97	35.7
행(行)	160	58.8
전(前)	15	5.5
합계	272	100

위와 같이 2등원종공신의 절반 이상인 약 58.8%의 직함 및 관직명 앞에는 ‘행(行)’이 붙여졌다. 다시 말해서 원래의 품계보다 낮은 품계의 임무를 맡아보는 공신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본래 자신의 품계대로 임무를 맡은 공신이 97명으로 35.7%였고, 이미 퇴직한 공신은 15명으로 5.5%로 구성되었다.

나. 姓氏 分析

좌리원종공신 2등에 책봉된 사람들의 성명을 통해 성씨를 분석해보았다. 이들의 성씨는 모두 48개였으며, 각각 성씨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2등원종공신 : 성씨 48개

區分	姓氏	人員數		比率(%)
		宗親	36	
1	李	기타	34	25.7
2	金		40	14.7
3	朴		17	6.3
4	尹		13	4.8
5	崔		12	4.4
	韓		각 9	
	安, 鄭, 洪		각 7	
	閔, 成, 柳, 趙		각 6	
기타	權, 辛, 曹		각 5	44.1
	孫, 宋, 申, 沈, 楊, 許		각 3	
	高, 盧, 文, 禹, 林, 任, 河		각 2	
	姜, 具, 南, 浪, 童, 裴, 邊, 薛, 慎, 魚, 呂, 吳, 王, 元, 張, 車, 太, 扈, 黃		각 1	
	合計		272	100

<표 19>를 살펴보면, 1등원종공신과 마찬가지로 2등에서도 이(李)씨가 25.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종친이 36명인 약 13.2%로 대다수 포함하고 있었고, 종친이 아닌 이씨는 34명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은 김(金)씨가 40명인 14.7%였으며 박(朴)씨가 17명으로 전체 중 6.3%로 구성되었다. 또한 윤(尹)씨가 4.8%였고 최(崔)씨가 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위의 5개의 성씨를 가진 공신들이 2등원종공신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의 43개의 성씨들은 각각 10명 이하의 공신들로 이루어졌고, 특이한 성씨로는 낭(浪)씨가 있는데, 이는 종4품 행부호군(行副護軍)의 직책을 맡은 낭삼파(浪三波)라는 공신이다. 여기에서 조선 시대 향화(向化)¹⁵⁾에 대한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낭삼파는 향화한 야인(野人 : 만주지역에 흘어져 살던 여진족의 여러 종족)으로 기록되었다.¹⁶⁾ 낭삼파는 어느 시기에 향화인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세종(世宗)대의 실록에부터 기재된 것으로 보아 그 즈음에 향화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는 세조(世祖)대의 좌익원종공신 2등으로 책봉되기도 하였다.¹⁷⁾ 이를 통해 조선 초기 사회는 다양한 지역의 향화인을 받아들여 그들이 조선에 정착해 살아갔음을 알 수 있다.

15)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된, 귀화(歸化).

16) 世宗實錄 卷113, 世宗 28年 7月 壬申條.

17) 世祖實錄 卷2, 世祖 1年 12月 戊辰條.

3. 3等原從功臣

가. 職銜 分析

좌리원종공신 3등에 책봉된 공신들은 모두 723명으로, 이들의 직함 및 관직의 구성은 325개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직함 및 관직 그리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녹권에 기재된 직함을 기준으로 이들을 품계별로 구분해보면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3등원종공신

品階	職 銜	人員數	比率(%)
군	吉昌君, 南城君	2	0.2
정1품	-	0	0
종1품	-	0	0
정2품	-	0	0
종2품	慶州府尹, 全羅道觀察使	2	0.2
정3품	兼司憲府執義, 工曹佐郎, 公州牧使, 廣州牧使, 光州牧使, 軍器寺正, 羅州牧使, 內醫院正, 內資寺正, 司饔院正, 司宰監正, 尙州牧使, 上護軍, 宣傳官, 承文院判校, 藝文館副提學, 禮賓寺正, 掌隸院判決事, 迪順副尉, 前軍器寺副正, 前軍器寺正, 前濟用監正, 前行上護軍, 族親衛, 宗簿寺正, 晋州牧使, 僉知中樞府事, 忠義衛, 忠州牧使, 通禮院右通禮, 行內侍府尙謹, 行上護軍, 行驪州牧使, 訓練院都正	41	5.7
종3품	兼承文院參校, 京圻左道水軍僉節制使, 慶尙左道水軍僉節制使, 大護軍, 滿浦鎮僉節制使, 戎鎮僉節制使, 保功將軍, 司諫院司諫, 所江僉節制使, 永安北道兵馬虞候, 穩城判官, 右道水軍僉節制使, 義州道水軍僉節制使, 前大護軍, 前滿浦鎮僉節制使, 前所江僉節制使, 前鍾城府使, 前通禮院相禮, 行甲山府使, 行江界府使, 行慶源府使, 行龜城府使, 行金海府使, 行內贍寺副正, 行內侍府尙藥, 行內資寺副正, 行大護軍, 行朔州府使, 行三陟府使, 行成均館司成, 行成川府使, 行順天府使, 行承文院參校, 行襄陽府使, 行延安府使, 行穩城府使, 行長興府使, 行濟用監副正, 行鍾城府使, 行昌城府使, 行昌原府使, 行會寧府使, 行訓練院副正, 惠山鎮僉節制使	54	7.5
정4품	奉列大夫, 前兼司憲府掌令, 行內侍府尙傳, 行成均館司藝, 行通禮院奉禮, 行護軍, 護軍	18	2.5
종4품	權知承文院校勘, 內醫院僉正, 端川郡守, 萬戶, 副護軍, 義禁府經歷, 載寧郡守, 前萬戶, 前司僕寺僉正, 前尚衣院僉正, 前豐德郡守, 豊基郡守, 行价川郡守, 行昆陽郡守, 行軍資監僉正, 行內侍府尙冊, 行內醫院僉正, 行都摠府經歷, 行萬戶, 行白川郡守, 行奉常寺僉正, 行副護軍, 行司橐寺僉正, 行司贍寺僉正, 行司宰監僉正, 行尚衣院僉正, 行承文院校勘, 行安城郡守, 行安岳郡守, 行理山郡守, 行楊根郡守, 行靈光郡守, 行禮賓寺僉正, 行儀賓府經歷, 行長興府使, 行載寧郡守, 行濟用監僉正, 行泰川郡守, 行平海郡守	52	7.2
정5품	內需司別坐, 禮曹正郎, 前司憲府持平, 前掌隸院司議, 前行司直, 行內侍府尙弧, 行司直, 行成均館直講, 行通禮院贊儀, 行刑曹正郎, 行戶曹正郎	40	5.5

品階	職 衡	人員數	比率(%)
종5품	鏡城判官, 權知承文院校理, 副司直, 北青判官, 守都摠府都事, 義禁府都事, 前副司直, 前尚衣院判官, 前承文院校理, 前穩城判官, 前宗廟署令, 前判官, 前會寧判官, 鐘城判官, 忠順衛, 忠贊衛, 行江陵判官, 行開城府都事, 行巨濟縣令, 行京圻都事, 行軍器寺參奉, 行軍器寺判官, 行軍資監判官, 行內侍府尚帑, 行內醫院判官, 行敦寧府判官, 行東萊縣令, 行奉常寺判官, 行副司直, 行司醞署令, 行尚瑞院判官, 行繕工監判官, 行星州判官, 行承文院校理, 行盈德縣令, 行永安道都事, 行禮賓寺判官, 行瓮津縣令, 行掌隸院司議, 行長興庫令, 行典校署校理, 行宗廟署令, 行忠翊府都事, 行忠清道都事, 行判官, 行平安道都事, 行歙谷縣令, 顯信校尉, 會寧判官	62	8.6
정6품	軍器寺別提, 權知承文院校檢, 敦勇校尉, 司鑰, 司憲府監察, 永安北道評事, 禮賓寺別提, 掌隸院司評, 前兵曹佐郎, 前司諫院正言, 前司果, 前司鑰, 前司憲府監察, 前尚衣院別提, 前典校署別提, 行內侍府尚洗, 行兵曹佐郎, 行司果, 行司謁, 行司憲府監察, 行成均館典籍, 行承文院校檢, 行藝文館修撰, 行掌隸院司評, 行刑曹佐郎, 行戶曹佐郎	80	11.1
종6품	金郊道察訪, 飯監, 秉節校尉, 副司果, 部將, 宣武郎, 承文院習讀官, 醫學教授, 前交河縣監, 前奉常寺主簿, 前部將, 前尚衣院主簿, 前永春縣監, 前行副司果, 前行部將, 忠贊衛, 行高山縣監, 行教授, 行軍資監主簿, 行南部主簿, 行內侍府尚燭, 行內醫院主簿, 行內資寺主簿, 行副司果, 行部將, 行司饔院主簿, 行泗川縣監, 行司畜署司畜, 行瑞興府使, 行石城縣監, 行義盈庫主簿, 行承文院習讀官, 行漣川縣監, 行藝文館副修撰, 行龍宮縣監, 行熊川縣監, 行長興庫主簿, 行典獄署主簿, 行中部主簿, 行免山縣監, 行通禮院引儀, 行豐儲倉主簿, 行河東縣監	81	11.2
정7품	務功郎, 司案, 前供奉, 前司正, 前典校署博士, 行內侍府尚烜, 行司案, 行司正, 行承文院博士, 行承文院注書	53	7.3
종7품	副司正, 前副司正, 前行副司正, 行內侍府尚設, 行副司正	12	1.7
정8품	前觀象監直長, 前司猛, 前尚衣院直長, 前豐儲倉直長, 前行司猛, 行軍器寺直長, 行內醫院直長, 行敦寧府直長, 行司導寺直長, 行司猛, 行司瞻寺直長, 行繕工監直長, 行成均館學正, 行承文院著作, 行長興庫直長	64	8.9
종8품	副司猛, 修義副尉, 前內瞻寺奉事, 前副司猛, 前司饔院奉事, 前宗廟署奉事, 前行副司猛, 行軍器寺奉事, 行軍資監奉事, 行內醫院參奉, 行副司猛, 行司饔院奉事, 行繕工監奉事, 行典牲署奉事, 行宗廟署奉事	30	4.2
정9품	司勇, 前司勇, 前洗馬, 前承文院正字, 前行司勇, 行軍器寺副奉事, 行奉常寺副奉事, 行司勇, 行承文院正字, 行藝文館檢閱, 行典醫監副奉事, 行訓導, 效力副尉	81	11.2
종9품	權知承文院副正字, 副司勇, 前軍器寺參奉, 前副司勇, 前驛丞, 前參奉, 前行副司勇, 行光陵參奉, 行內侍府尚苑, 行副司勇, 行承文院副正字, 行顯陵參奉	24	3.3
기타	奴, 良人, 學生	27	3.7
合 計		723	100

위의 <표 20>에서 알 수 있듯이 3등원종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의 직함은 모두 325개였으며, 가장 많은 공신들이 포함된 품계는 종6품과 정9품이 각각 81명으로 11.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6품이 80명으로 11.1%였으며 정8품의 공신이 64명으로 약 8.9%를 이루었다. 대략 위의 품계를 지닌 공신들이 3등원종공신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1등 및 2등원종공신과는 다르게 대체적으로 품계가 낮은 직함의 공신들로 이루어졌으며 군(君) 등의 왕의 친족이나 인척인 공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좌리원종공신은 등급이 높을수록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품계가 대체적으로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품계가 낮은 직함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23명의 3등원종공신은 325개의 직함에 따라 인원수가 각각 달랐는데, 인원수가 많은 직함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3등원종공신 : 325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관	인원수	비율(%)
1	行司勇	정9품	무관	55	7.6
2	行司猛	정8품	무관	46	6.4
3	行司正	정7품	무관	41	5.7
4	行司果	정6품	무관	28	3.9
5	行司直	정5품	무관	26	3.6
합 计				196	27.2

3등원종공신 중에 위의 <표 21>에서 보듯이 오위(五衛)에 속했던 행사용(行司勇)이 55명으로 가장 많이 있었으며, 같은 오위에 속했던 정8품의 행사맹(行司猛)이 46명으로 약 6.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약 5.7%의 공신이 정7품 행사정(行司正)이었고, 정6품 행사과(行司果)와 정5품 행사직(行司直)이 각각 3.9%와 3.6%로 구성되었다. 이들 모두는 오위에 속하던 직함으로 무관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좌리원종공신 3등의 문·무반 현황

區分	人員數	比率(%)
문관	322	44.5
무관	372	51.5
종친 및 인척, 군	2	0.3
기타	27	3.7
합계	723	100

좌리원종공신 3등의 문·무반 현황에서는 1등·2등과는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1등과 2등의 공신들은 문관의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3등 공신은 문관보다는 무관의 직함을 지닌 사람들이 더 많았다. 또한 종친 및 인척, 군인 공신들이 1등과 2등에 비해 3등에서는 현저하게 그 비율이 낮았으며, 노비[奴] 혹은 양인(良人)인 공신들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좌리원종공신 3등의 직함에서도 1·2등과 마찬가지로 직함 및 관직명 중에서 앞에 전(前)이나 행(行) 또는 아무 것도 붙이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이에 따른 공신들의 직함을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3등원종공신

구분	인원수	비율(%)
일반	156	21.6
행(行)	479	66.3
전(前)	88	12.1
합계	723	100

위의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3등원종공신 중에는 관직 및 직함명 앞에 ‘행’을 붙인 것들이 66.3%로 나타나는데, 이는 본래 자신의 품계보다 낮은 품계에 해당하는 직함을 행한 공신들이 많았으며 이미 퇴직한 공신들로 직함명 앞에 ‘전’을 붙인 경우가 12.1%였다. 본래 자신의 품계대로 직함을 받은 공신들은 21.6%로 1·2등에 비해 그 비율이 낮았다.

나. 姓氏 分析

좌리원종공신 3등에 책봉된 사람들의 성명을 분석해보았더니 모두 723명의 성명 중에는 74개의 성씨를 찾아볼 수 있었다. 각각 성씨에 따른 인원수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 24〉이다.

〈표 24〉 3등원종공신 : 성씨 74개

區分	姓氏	人員數	比率(%)
1	李	宗親 0 기타 126	17.4
2	金	117	16.2
3	朴	43	5.9
4	崔	33	4.6
5	鄭	32	4.4
기타	柳	24	51.5
	韓	23	
	權	22	
	趙	19	
	尹	17	
	姜	13	
	宋 安	각 11	
	申	10	
	盧 吳 張	각 9	
	南 邊 全	각 7	
	文 閔 孫 元	각 6	
	白 徐 禹 蔡 河 洪	각 5	
	沈 王 黃	각 4	
	慶 郭 薛 成 辛 梁 嚴 愉 林 任 田 丁 曹 陳	각 3	
	具 丘 裴 卞 奉 劉 尤 秦 許	각 2	
	高 琴 奇 羅 馬 萬 卜 傑 慎 楊 余 延 廉 前 銓 朱 車	각 1	
	合計	723	100

〈표 24〉를 살펴보면 앞의 1·2등과 마찬가지로 이(李)씨 성을 가진 공신이 17.6%인 126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씨 중 종친인 경우는 한 명도 없다는 점이 3등 원종공신만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은 김(金)씨의 경우가 16.2%인 117명으로 많았고 박(朴)씨, 최(崔)씨 및 정(鄭)씨를 가진 공신들이 각각 43명, 33명 및 32명의 순으로 좌리원종공신 3등으로 책봉되었다. 위의 5개의 성씨인 공신들이 3등원종공신 중 절반 정도로 구성되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성씨를 가진 공신들이 녹권에 기재되어 있다.

V. 結 論

이 연구는 성종 2(1471)년 좌리원종공신에게 발급된 『좌리원종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문헌상의 기록과 현존하는 실물자료를 조사하여 녹권의 반사사유를 비롯하여 형태·체제·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좌리원종공신녹권』은 성종이 자신을 잘 보필하고 정치를 잘한 공으로 신하들 1,059명(1등 64명, 2등 272명, 3등 723명)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한 후 그들에게 반사한 공신 증명서이다.

둘째, 『좌리원종공신녹권』은 현재 조사된 바로 성암고서박물관에 1종이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녹권의 보존 상태는 앞쪽 2장 가량의 하단 부분이 떨어져나가기는 했으나 비교적 양호하였다.

셋째, 『좌리원종공신녹권』은 을해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 1책으로 이조에서 발급하였으며, 조선 초기 고서의 주요한 특징인 사주단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吏曹之印’의 인장이 권수제면의 수급자가 기재된 부분 1곳에 주인(朱印)되었다.

넷째, 『좌리원종공신녹권』의 체제는 크게 권수·본문·권말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수는 녹권의 발급기관과 수급자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은 봉명일·봉명자, 반사사유, 등급별 공신의 직함 및 성명,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권말은 녹권 발급에 관여한 관원들의 직함과 성씨, 수결 등을 담고 있다. 연구대상 녹권의 수급자는 야로(冶爐)가 본관인 ‘통훈대부행돈녕부주부 송륜(通訓大夫行敦寧府主簿 宋綸)’이었다.

다섯째, 좌리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은 모두 1,059명으로 3등급으로 구분되어 『좌리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되었다. 이들의 직함을 분석한 결과, 1등원종공신은 36개의 직함에 모두 64명이며 그 품계에 따라 군(君) 16명, 종2품에 해당하는 직함이 11명, 정3품은 8명 순으로 기재되었다. 직함별 인원수는 군이 가장 많았고 동지중추부사와 행대호군이 각각 4명이었다. 2등원종공신은 171개의 직함에 모두 272명이었고 그 품계에 따라 정3품이 43명, 종5품이 34명이었으며 정5품이 27명 순으로 많았다. 직함별 인원수는 종5품 무관직인 행부사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부호군 9명과 행사직

7명이 기재되었다. 3등원종공신은 325개의 직함에 모두 723명이었으며 종6품과 정9품이 각각 81명으로 많은 공신들로 구성되었고 정6품에 해당되는 공신은 80명이었다. 직함별 인원수는 정9품 무관인 행사용이 55명, 정8품 무관인 행사맹은 46명, 행사정은 정7품 무관으로 41명의 순으로 많이 차지하였다. 좌리원종공신의 직함은 모두 513개였으며 행사용(行司勇)은 58명, 행사맹(行司猛)이 48명이었고 행사정(行司正)이 41명 순으로 인원수가 많았다. 또한 2·3등의 원종공신 중에서는 노비[奴]나 양인 등을 찾아볼 수 있고, 이로써 신분의 차별 없이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1등에는 신분이 높은 종친 등과 문관이 많았으나 3등으로 갈수록 종친 등과 문신의 수는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무관들이 책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좌리원종공신녹권』이 기재된 공신들의 성명 중 성씨를 등급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등원종공신 64명 중에는 27개의 성씨로 파악되었다. 그 중에서도 이(李)씨가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종친인 경우가 15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밖에 김(金)씨가 6명, 정(鄭)씨가 3명 등이었다. 2등원종공신 272명의 성씨는 모두 48개로 1등과 마찬가지로 이(李)씨가 약 25.7%인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종친이 36명으로 절반 가량이었다. 또한 김(金)씨가 40명, 박(朴)씨가 17명 순으로 많았다. 3등원종공신 723명의 성명 중에서는 74개의 성씨를 찾아볼 수 있었다. 3등 또한 이(李)씨가 가장 많았으나 1·2등과는 달리 종친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金)씨가 117명이며, 박(朴)씨가 43명으로 다양한 여러 성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 좌리원종공신 중에는 이(李)씨와 김(金)씨가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조선 성종 초기에 반사된 녹권의 대상자에는 다양한 성씨와 직위를 가진 인물이 분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차후로도 현존하는 녹권을 하나하나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신분사 및 인구사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古典資料

『經國大典』.

『朝鮮王朝實錄』.

『佐翼原從功臣錄券』.

『佐理原從功臣錄券』.

2. 單行本

-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서울 : 가람기획, 2002.
- 李成茂. 朝鮮兩班社會研究. 서울 : 一潮閣, 1995.
-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 사전.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 千惠奉.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 범우사, 1993.
- _____. 한국 서지학. 서울 : 민음사, 2006.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韓永愚. 朝鮮時代 身分史研究. 서울 : 집문당,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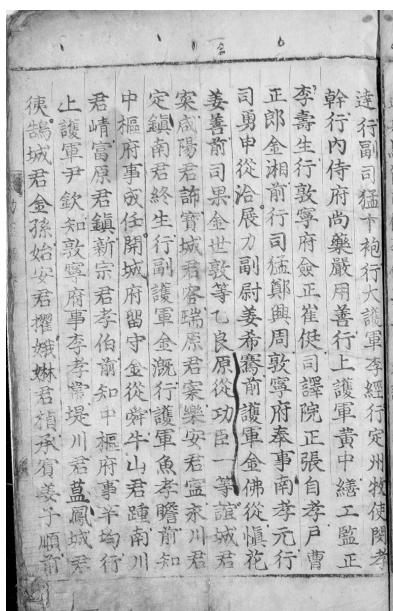
3. 論文

- 노기춘. “振武原從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9輯(2008), pp.169-200.
- 林基榮. 壬辰倭亂 直後 賦給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2.
- 朴文烈. “月川君 金吉通 純誠佐理功臣錄券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1輯(2005), pp.5-32.
- 송일기, 진나영. “佐翼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08. 12), pp.392-415.
- 李成茂. “朝鮮前期의 身分制度.” 東亞文化, 第13輯(1976), pp.173-191.
- 전종섭. 朝鮮 成宗朝 佐理功臣에 關한 一考察.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학전공, 1979.
- 鄭杜熙. “朝鮮 世祖-成宗期의 功臣研究.” 震壇學報, 51號(1981), pp.131-181.
- 진나영. 朝鮮時代에 刊行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 정보학과, 2008.
- 崔承熙. “朝鮮後期 原從功臣錄券과 身分制 동요.” 韓國文化, 第22輯(1998), pp.113-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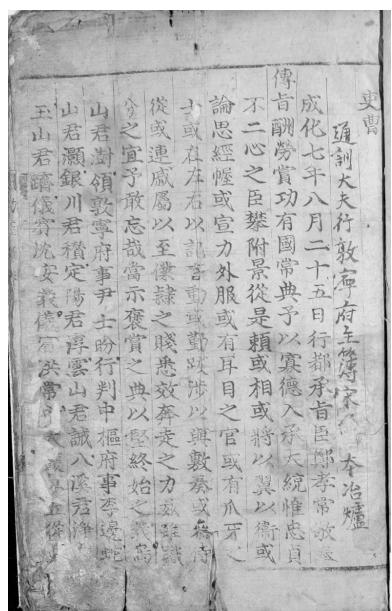
4. Web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해제. <<http://kyuganggak.snu.ac.kr/>> [인용 2009. 11. 09].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jsp>> [인용 2009.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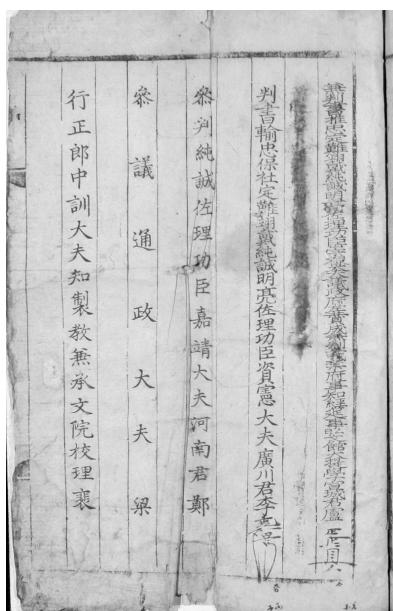
〈附錄〉『佐理原從功臣錄券』書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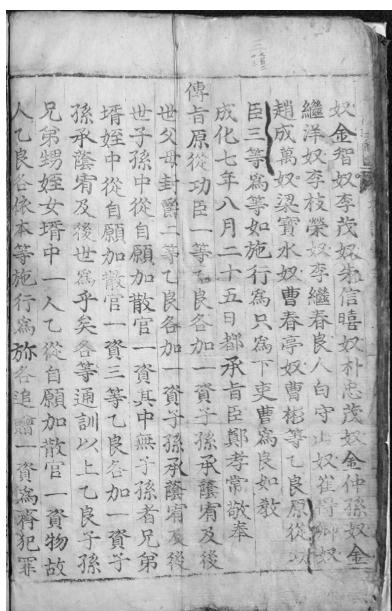
〈등급이 바뀌는 면〉



〈권수제면〉



〈녹권 간행 담당관원의 직함과 성씨〉



〈포상규정 및 특전이 시작되는 면〉